

2023 새해 이렇게

김순호 구례군수

“머물고 싶은 관광·치유산업 중심도시 육성 집중”



레저 시설 도입·화엄상가 정비·온천산업 되살려 휴양지 조성 청년 창업·주거 지원, 농촌유학다운 건립...지방소멸 대응 총력

“머물고 싶은 관광도시, 치유산업 선도도시로 더 크게 도약하는 구례군이 될 것입니다.”

김순호 구례군수는 새해 인터뷰에서 신년사에서 “아름다운 운송도 빛이 물결을 만나고 바람이 함께해야 만들어지고 유지 된다”라며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키워 낸 군민과 함께 빛나는 미래를 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 군수는 우선 “머물고 싶은 관광산업 육성에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그는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구례를 찾는 관광객이 늘어나고 있다. 통계치를 보면 2021년에는 2020년보다 20%가 늘어난 193만 명, 2022년에는 2021년보다 45%가 늘어난 280만 명이 우리 구례를 다녀갔다”며 “하지만 아쉬운 점은 관광객들이 구례에서 잠을 자지 않고 여수나 타 지역으로 간다는 점이다. 관광객들의 발길을 잡고 구례에 머물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구례군은 이를 위해 지난해 오산 케이볼카 설

치를 위한 540억원 규모의 민자 유치에 성공했다. 오산 명승구역 축소와 맞물린 값진 성과를 토대로 2000억 원 규모의 오산 관광 클러스터 조성을 핵심 프로젝트로 추진할 방침이다.

오산과 섬진강을 하늘에서 즐길 수 있도록 케이볼카를 비롯해 스카이 바이크와 스카이 서퍼 등 익사이팅 레저 체험시설을 도입하고, 대형 불상을 조성에 체류형 관광도시 구례의 매력도를 획기적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아울러 방직업 화염상가를 정비하고, 지리산은 천지구의 침체된 온천산업을 되살려 머무러 가는 휴양지로 만들 계획이다. 온천호텔, 골프장 등 민자 휴양시설을 유치하고, 헬스케어·뷰티·반려동물과 연계한 융복합 사업을 준비 중이다.

치유산업 선도도시로 도약하겠다는 포부가 숨겨지지 않았다.

김 군수는 “자연드림파크 3단계에 지리산 치유·힐링 클러스터를 조성하려 한다”며 “아이쿱생협

민자 유치로 체류형 치유센터와 요양타운을 조성해 미래 먹거리인 치유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치유농업을 통한 국민 건강 증진, 삶의 질 향상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전례의 자연자원과 풍부한 농업자원을 활용한 치유농업 캠퍼스를 조성해 경제 활성화와 고용 창출을 도모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지방소멸 대응 방안도 내놓았다.

구례군은 지방소멸대응 기금을 활용한 창업과 주거 지원으로 청년인구를 늘리고, 농촌유학다운을 건립해 도시민 가족의 유입을 촉진한다.

특히 청년 임대주택인 청년 하우스는 창업과 거주 문제를 함께 해결하는 ‘원스톱 라이프’ 공간으로 만들 계획이다. 주거 공간과 함께 북카페, 사무 공간, 스튜디오 등이 모두 갖춰진 보급자리에 다양한 직업군의 청년들이 끈끈한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하며 구례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농촌유학타운에서는 주거시설 제공뿐만 아니라 구례에 거주하는 동안 구례의 색깔을 만끽할 수 있도록 지역 특성에 맞는 유학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매년 문제가 되고 있는 자연재해를 저감하는 대책도 역점사업이다.

김 군수는 “내년 6월까지 수해 복구 및 항구적 예방을 위해 지구 단위 종합복구사업을 마무리하고 자연재해 저감 종합대책을 수립하는 등 안전한 정주 환경 조성에 힘쓰고 있다”며 “중대재해는 물론 일상의 다양한 사고에도 대비하여 군민안전 보합 가입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구례읍에 복합광장 조성, 백련천 복원 사업과 더불어 읍면 중심지에는 문화센터를 건립해 군민들의 다양한 문화, 복지 수요를 충족시킬 계획이다.

또 올해부터 전국적으로 고향사랑 기부제가 실시되는 만큼 지역홍보와 농산물 유통을 촉진할 수 있는 답례품으로 지역 경제를 활성화 시키고, 기부자를 관계인구로 지속 발전시켜 나간다.

김순호 구례군수는 “우리 구례 군민들은 힘을 얻은 길고 긴 시간을 지나 기적 같은 오늘을 만든 사람들이다. 진심으로 존경하고 사랑한다”며 “언제나 군민들과 소통하며 빛나는 미래를 함께 만들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구례=이진택 기자 lit@kwangju.co.kr

여수~남해 해저터널 올 하반기 첫 삽...2031년 완공

총 사업비 6974억원 투입 70분 거리 10분으로 단축

여수시와 경남 남해군을 잇는 해저터널이 올해 첫 삽을 뜬다. <계획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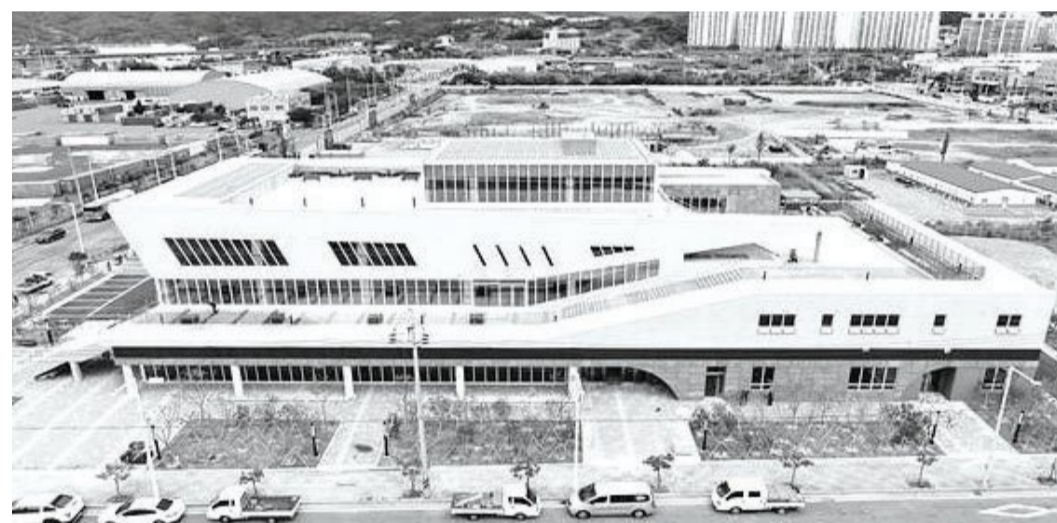
여수시에 따르면 현재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이 진행 중이다.

터키(설계·시공 일괄) 방식의 입찰에는 현재 DL이앤씨, 포스코건설, 롯데건설 등 3곳이 각각 컨소시엄을 구성해 참여를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오는 5월 사업자가 선정되면 실시설계를 거쳐 올해 하반기 공사에 들어가 2031년 완공 예정이다. 총연장 7.31km(해저터널 5.93km 포함) 4차로인 해저터널에는 총사업비 6974억원이 투입되며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 사업을 주관한다.

해저터널이 건설되면 70분이 소요되던 여수~남해 간 이동시간이 10분 이내로 단축된다.

여수시 관계자는 “해저터널이 건설되면 여수가 남해안 거점도시로서 역할이 더욱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사업이 적기에 진행되도록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남해군과 지속해서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여수=김창화 기자·동부취재본부장 chkim@



광양 수산물유통센터.

광양시, 수산물센터 도매시장 운영법인 선정

(주)강동유통...4월 중 정식 개장

광양시는 지난 6일 실시한 평가위원회를 통해 (주)강동유통을 광양시 수산물유통센터 내 수산부류 도매시장 운영법인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전남 동부권 수산물을 유통하는 산물유통센터는 6303.5㎡의 부지에 연면적 6951.52㎡(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수산물도매시장, 수산전문식당, 카페, 루프톱 라운지 등 시민과 방문객을 위한 각종 수산물 유통시설과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다.

이 중 ‘수산물도매시장’은 유통센터 지하 1층의 냉동창고 시설과 지상 1층 활어·선어·냉동 판매장으로 구성돼 있으며, 평가위원회를 통해 선정된

수산물 유통 전문 법인이 운영한다.

시는 지난달 12일부터 제5차 모집공고를 통해 ‘광양시 수산물도매시장’의 운영법인을 모집했고 평가위원회를 거쳐 (주)강동유통을 선정했다.

시장도매인제는 경매를 시행하지 않고 산지에서 직접 매수해 판매되는 방식으로, 소비자에게 오기까지 유통 단계를 줄임으로써 유통비용을 절감하는 운영 방식이다. 도매시장 운영법인 지정이 완료되면 판매장 설비 등 영업준비 기간을 거쳐 4월 중 정식 개장할 예정이며, 도매시장 판매장과 편의시설 바닥공사 및 전기공사, 냉동창고 설치 등 기반 시설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

순천시 영상크리에이터·소셜미디어 기자 모집

순천시가 오는 20일까지 2023년 순천시 영상크리에이터와 소셜미디어기자(이하 시민 크리에이터)를 모집한다.

시민 크리에이터는 2월부터 12월까지 매월 시정소식, 축제, 관광지·맛집, 정원 소개 등 자유로운 홍보콘텐츠를 발굴해 시민의 눈으로 보는 다양한 순천의 모습을 시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홍보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특히 2023년은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개최는 해이니만큼 정원박람회 구성구역을 취재해 전국민의 관심을 이끌어 낼 시민 크리에이터의 홍보 활동이 더욱 중요한 때이다.

영상크리에이터 지원 신청은 네이버 폼(https://naver.me/5t4c2EKg)에서 가능하며, 소셜미디어 기자단은 본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 순천시 관련 샘플 콘텐츠를 게시한 후, 오는

20일까지 신청서와 함께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선발인원 및 지원 자격 등 자세한 사항은 시 누리집에서 확인하거나 순천시 홍보실 뉴미디어 홍보팀(061-749-5728)으로 문의하면 된다.

순천시 홍보실 관계자는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의 성공을 위해 시민 크리에이터들과 함께 생동감 넘치는 현장을 담은 콘텐츠로 순천을 알리고, 시민과 소통해 나가겠다”며 “참신하고 역량이 있는 시민 크리에이터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순천=김은종 기자 ejkim@kwangju.co.kr



구례군 고령 농가 김나무 전정 작업 지원

구례군에서 고령 감 재배 농업인에게 전문 전정 인력을 지원하여 고품질 구례 감 생산 지도에 한창이다. 구례군의 고령농업인 감 전정 지원 사업을 추진, 고령이거나 여성, 거동이 불편한 경우 등 군민의 전정작업을 돕고 있다. <구례군 제공>

보성군, 귀어 창업 최대 3억원까지 융자 지원

주택구입 7500만원...대상자 모집

보성군은 오는 26일까지 귀어·귀촌인의 안정적인 어촌 정착 지원을 위해 ‘2023년 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지원 분야는 ▲귀어 창업과 ▲주택 분야로 창업은 어업, 양식업, 수산레저 등 최대 3억 원이며 주

택 구입과 신축, 리모델링은 최대 7500만 원으로 융자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사업 대상은 만 65세 이하로 1년 이상 어촌 이외 지역에 거주하고 어촌으로 이주한 지 5년이 넘지 않아야 한다.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면서 어업을 경영하지 않는 자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최근 5년간 귀어 관련 교육을 35시간 이상

이수한 실적이 있어야 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오는 3월부터 창업, 주택 구입 등의 사업을 본격 추진하여 2024년 12월까지 사업 완료 후, 연 2% 금리를 적용하여 5년 거치 10년 분할 상환 조건으로 융자 지원을 받게 된다.

사업희망자는 보성군 홈페이지 공고문에 게시된 서류를 갖춰 보성군 해양수산과 수산정책팀 또는 읍·면 산업팀에 방문하면 된다.

/보성=김은택 기자 kyb@kwangju.co.kr

곡성군, 강소농 브랜드개발 과정 교육 개강

포장 디자인 개발 등 경쟁력 강화

곡성군은 지난 9일 농업기술센터에서 강소농 브랜드개발 전문과정 교육을 개강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중소 규모의 농업경영체 소득증대를 위해 마련됐으며, 오는 27일까지 총 6회에 걸쳐 진행된다. 교육에는 지난해 곡성군에서 진행된 경영개선실천 기초과정을 이수한 12명의 강소농이 참여하고 있다. 온라인 판매, 로컬푸드 출하, 소비자 직거래 등이 많은 강소농과 청년 농업인이

대부분이다.

이들은 자신들의 생산품에 대한 브랜드와 포장 디자인이 없어 홍보나 판매에 어려움을 겪었다. 따라서 이번 교육이 이같은 문제를 해소하고 농산품의 경쟁력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곡성군은 농식품 디자인 분야 최고 권위자인 시우디자인센터 노시우 대표를 강사로 초청했다. 특히 일대일 컨설팅 방식으로 교육을 진행함으로써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곡성=박종태 기자 pjtt@kwangju.co.kr